2만 달러 시대의 한국 경제, 선진국 진입의 동력은 있는가

- 잠재성장률및경제의지하락이걸림돌, 기업투자활성화대책절실 -

우리나라의작년도1인당국민소득이1만8,000달러를넘어선것으로추정되고있다. 그리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4%를 넘어서고 달러 환율이 900원대 초반을 유지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에이 2만달러경제가 그대로유지된다면1995년에1만달러에진입한 후 11년째빠져있던1만달러의덫에서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그러나아직 속단은 금물이다. 최근 빠른 속도로 달러 표시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게된가장큰요인이달러환율의하락이기에이 환율이다시상승하게 되면 다시 1만 달러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우리 경제가1997년에 1만 달러대로 처음 진입했다가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다시 1만 달러 이하로 떨어진경험이있다.

이제우리의관심사는우리경제가1인당국민소득2만달러를넘어서선진국의기준인1인당국민소득3만달러대로진입할수 있는가여부이다. 그러나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왜냐하면 지난 100년 동안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공적으로 진입한 나라는일본과아일랜드뿐이었기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선진국 진입은 극히 예외적인 사건인것이다. 싱가포르 · 홍콩 · 스페인같은 나라들이 13년 이상 2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거나 그리스 · 포르투갈 · 대만처럼다시 2만 달러대 진입조차 실패했거나, 아니면 브라질 · 아르헨티나처럼 다시 1만 달러 이하로떨어졌던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위해서는정부와국민모두의특단의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더욱이최근 우리나라의경제 상황은불필요한 이념논쟁, 불안한 노사관계, 세계에서가장빨리진행되는 고령화 · 저출산화 등으로 인해 성장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에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 2만 달러 이하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과제와그실천수단을제시하고자한다.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에도 미달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되면 한국경제가 많이 나아져야 하고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개선되어야 하지만 국민과 기업의 체감경기는결코그렇지못하다. 그이유는 1인당 GDP는 지난 4년 동안 3.1%(2003), 4.7%(2004), 4.0%(2005), 5.0%(2006)씩증가했지만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교역 조건의 악화, 달러 가치의 하락, IT 제품의가격 인하에 따라 실제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실질국민소득(GDI)은 평균 2.1%정도밖에 증가하지 못했기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경제성장률은그기간동안세계경제의호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인 5%를 훨씬밑돌고, 세계평균성장률에도못미치고,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꼴찌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국민총생산기준으로 2004년세계 10위를차지했었으나 2006년에는 러시아와 인도에 추월당하여세계12위로밀려나고말았다.

성장 잠재력도 지속적 하락

한국경제가안고있는문제는이러한단기적인 경기 침체의 지속 외에도 장기적으로성장잠재력이계속하락하고있는것이다. 특히, 세계에서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 저출산이진행되는가운데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2019년경부터는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인고령사회로접어들게되는데 그 전에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선진국이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고령사회가되면지금보다훨씬 줄어든청년층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난 고령층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되면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성장 잠재력은 급격히 떨어질수밖에없는것이다. 따라서 우리경제는성장잠재력이4% 이하로떨어질 2015년까지일인당국민소득3만달러로 진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5 6%가 되어야 하는것이다. 그러나우리의잠재성장률은현재5% 정도인데 2010년이후에는4.5% 이하로떨어지게 되어있다. 따라서이대로가면우리경제는 고령 사회로 접어들기 이전에 선진국으로 진입하는것이불가능한것이다.

경제 의지 하락이 걸림돌

이러한 잠재 성장률의 하락 외에도 최근 우리나라에서는다른나라에서이미논쟁이 끝난 좌우이념대결이한창이다. 지난100년 동안의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사람들의 먹거리조차 해결하지 못해 패퇴한 좌파 이데올로기가 득세를 하고 나라를 좌경화로 몰고 가고있는것이다. 그들은성장보다는 분배를, 경쟁보다는평준화를 주장하고, 친북 반미와 통일지상주의 경향을 보이면서 국제적으로 고립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이러한 경향의 사람들이 참여정부와 여당의 핵심을 구성하여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끌고왔다. 이들은 반기업 · 친노조 경향을 보이면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기업과우리사회부의창출세력의 경제 의지에 찬물을끼얹었다. 그들은소위 기득권 세력을부수는것이마치개혁인것처럼 주장하면서「국가보안법」폐지,「사학법」,「신문법」,「과거사법」등의진보적개혁입법의통과에집착함으로써국론을분열시켰다.

세계가무한경쟁시대에접어든지금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국가경쟁력의 근원인 기업과 각 부문의 엘리트들을독려해야할때, 이들의경제의지를꺾었으니경제가제대로될수가없는것이다.

잠재성장률의하락과우리사회부의창출 세력들의 경제 의지 하락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가는데걸림돌이되고있다. 따라서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 걸림돌을 반드시제거해야할필요가있는것이다.

잠재 성장률 제고가 우선 과제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락하고 있는잠재성장률을높여야한다. 이대로가면 잠재 성장률은 점점 하락하겠지만 이러한잠재성장률은높이는것도가능한것이다. 잠재성장률에영향을미치는요소는노동의양과질, 자본의양과질이다.

먼저 노동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인력과 고령자 노동력을활용하는 정책을개발해야 한다. 출산을장려하기 위해서는저비용교육정책, 보육제도의활성화, 출산휴가등이필요하다. 노동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 평준화제도를개선하여창의성과수월성을중시하는 교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교육비를 높이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빈곤의대물림을조장하는현재의교육평준화제도는반드시개선되어야한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사람 외에는 별다른 자원이 없는 우리 경제에서 사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교육제도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이해할수없는현상이다. 국제경쟁에서이길수있는인재를양성하기 위해서는 경쟁은 경쟁대로 하고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불평등은 사후적으로 복지정책 등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해야한다. 노사 관계를 획기적으로개선하여불법파업으로인한근로손실을줄이고노동생산성을높이도록해야한다.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 강구되어야

그 다음에 자본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선 저축률과 투자율이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 이자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어 저축률과기업의투자율을높여야한다. 특히국내외기업의투자를활성화하기위한규제완화, 반기업정서완화등의대책이강구되어야한다. 자본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방을 확대하여 외국 기업이나 상품과의 경쟁을통해생산성을높여야한다.

신성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잠재 성장률의 제고와 더불어 21세기 세계경제전쟁의주무대가되고새로운국부창출의 원천이 될 신성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 IT, BT, ET, 문화, 레저서비스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금융산업등이이에해당한다. 이를위해서는이러한신성장산업에서의경쟁을활성화해야하고이를위해선이부문의개방을확대해야한다. 그리고 개방과 더불어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기술 개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기초 기술은 정부가 주도하고 응용 기술은 금융, 조세, 인센티브를동원하여민간부문이주도하도록해야한다.

정부도 작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마지막으로작고효율적인정부를만들어야한다. 기업을포함한모든경제주체들의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원도 필요하지만 규제 완화가 더 필수적이다. 참여정부는크더라도 할일을하는 정부를주장하지만큰 정부는반드시규제와 시장원리에위배되는비효율적인정책을양산하게 마련이고 이것이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그리고큰정부는국가경제수준에비해과도한분배정책과사회복지정책의추진 결과로생겨나게되는것이다.

나성린
한양대경제금융학부교수